

회 요 세 펑



명진
알암인권작은도서관장

쉬는 날이면 시골에 있는 처가에 꼭 들렸던 정이 많던 사위. 장인어른의 건강을 살피고 장모님께 재미난 얘기를 해주던 누구보다 따뜻했던 사람이다. 끝없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건설자본의 탐욕으로 처참히 무너져 내린 차가운 콘크리트 더미 속에 갇혀 있다.

각각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평범한 작업자들 6명이 앗아간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2주. 믿을 수 없는 사고를 당한 가족들은 제반 상황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실종자 수색작업에 하루하루 피눈물을 삼기며

실종자 가족 피눈물 삼키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사고 현장에는 실종자 가족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상인 등이 생활터전이 무너진 충격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실종자 수색을 위해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색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소방대원들을 비롯한 행정기관, 자원봉사자들도 한마음이 돼 실종자 수색에 최우선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작업현장 감시하게 해달라”

그런데 정작 누구보다 앞장서 이 일을 수습해야 할 사고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실종자 수색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울분을 토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중 다른 안전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대책위의 수많은 전문가 회의와 더딘 수색을 참고 기다렸는데, 사고 열흘 만에 겨우 타워크레인이 해체되어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24시간 수색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기 때-

문으로 이해한다. 정몽규 회장의 초기대응이나 사퇴 과정에서 보여준 책임회성 태도는 이미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 그런 기업문화 탓인지 사고 현장에서도 수색 진행을 바라는 요구를 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구조를 보조할 첨단장비와 물적투입을 최대치로 배치해 구조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도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워크레인 해체가 끝나고 수색 작업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오후 10시쯤까지 기다렸지만 수색에 위험을 주는 구조물 제거를 담당할 현신의 작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어떤 수색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현대산업개발은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소방지부도 21일 성명을 내고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구조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며 “후안무치한 현신에게는 시민의 세금 10원조차 아깝다”고 성토했다. 부실공사 해명과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실종자 수색의 여건이 확보됐으나 24시간 수색체계를 갖춰 일각이라도 빨리 실종자들을 찾아야 한다는 가족들의 주장은 너무 당연하다. 이미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지만 구조작업이 진행된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실종자들 수색과 함께 인근 피해주민들과 아이파크 입주자들의 피해보상 문제 등 사고 수습을 위한 과정은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사람 살리는 책임 다하기

“저희는 인명 피해가 생긴 거고, 상인분들은 재산 상의 피해나 생계 어렵습니까. 이런 누구의 아픔이 크고 작고가 아닌 겁니다. 도대체 미안해야 할 사람이 저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붕괴사고로 다른 피해를 보신 분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실종자 가족의 말이다.

부실공사로 인한 아파트 붕괴로 일상을 잃어버린 모든 피해자들과 광주시민에 대해 현신이 정말 책임을 다하겠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기를 바란다.

사 설

출마자 출판기념회 연기 잇따르지만

지방선거에 뜻을 세우고 있는 후보 또는 출마예정자들이 숙앓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때쯤이면 출판기념회를 열어 세 과시와 선거자금 마련에 나서야 하는데 사국이 사국이니 만큼 대놓고 출판기념회를 하지 못해서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는 신축 아파트 붕괴 등 잇따른 참사로 엄중한 분위기여서 예정했던 출판기념회를 연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구청장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이강 전 광주시 대변인이 얼마 전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혀 시민 공감을 얻은 이후 다른 주자들도 연기 또는 취소하거나 겟도 중이다. 참사도 참사지만 지역에서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분위기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환경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해 시민들의 눈살을 짚푸리게 할까봐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지방선거에 뜻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이강 전 광주시 대변인이 얼마 전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혀 시민 공감을 얻은 이후 다른 주자들도 연기 또는 취소하거나 겟도 중이다. 참사도 참사지만 지역에서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분위기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환경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해 시민들의 눈살을 짚푸리게 할까봐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중대재해법’ 사전준비 철저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지역 산업체가 대응 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광주

시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 조항 가운데 모호한 구석이 있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보완하는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전체 사업체 수는 12만 3,706개(2019년 기준), 종사자 수는 63만 1,876명이다. 광주 사업체 중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1,429개 업체로 1.16%를 차지한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나 책임경영자, 법인이 안전·보건 책임을 지게 하는 강력한 법이다.

지역 산업체는 중대재해법 대처방안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하청 근로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 대표이사가 질 책임이 초미의 관심사다. 최고 안전책임자를 두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권을 위임해도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한 우려도 예전하다.

최근 터진 안전사고로 이미지가 주락한 지역건설업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는 등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중소건설사들은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은 안전사고를 줄이자는 좋은 취지이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데다 처벌규정도 과도해 법이 시행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 법의 핵심은 노동자 안전 강화다. 기업이나 정부 부처, 지자체는 전담 조직, 전문 대응팀이 경영책임자의 책임 회피 수단이 아닌, 안전체계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원심력의 스윙으로 원심력의 스윙을 하여야 한다. 팔로만 빠르게 하는 스윙에는 파워에도 한계가 있고 방향을 잡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몸의 코일링이 최대한 작동돼야 고임이 풀릴 때 가속도가 불어 헤드스피드가 빨라진다.

파워있는 스윙스피드는 팔로스로우와 피니시에서 판가름이 난다. 임팩트에만 집중하여 불을 가격하는 일명 임팩트스윙은 헤드스피드가 급격하게 떨어지므로 임팩트 후에도 팔로스로우 끝까지 피니시스윙을 해야 제대로 원하는 힘을 전달할 수 있다.

/한국골프학회부회장·체육학박사



바람을 가로지르는 헤드 스피드

핸디캡과 드라이버 비거리와의 상관관계는 밀접하다. 드라이버는 쇼라는 이미지와 연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멀리 치는 선수가 짧순이 골퍼보다는 훨씬 언더 스코어를 정복하기가 수월하다.

통계로도 클럽 헤드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더 좋은 스코어를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투어 선수들은 기를 쓰고 운동을 하고, 몸을 만들어서 더 멀리 보내면서도 제어가 될 수 있는 샷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처럼 골프 라운드에서 어떻게 하면 헤드스피드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는 숙제이자 훈련의 목표이다.

지도자들은 힘을 빼고 클럽을 휘두르라고 주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골퍼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비기너들에겐 긴장 속에서 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힘이 빠지지 않는다. 어깨는 힘을 빼고 일정한 압력으로 클럽을 쥐고 부드럽게 스윙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많은 연습과 라운드 경험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장티를 치기 위해 유의할 점이 있다. 스피드는 흔히 속도로 번역되며 각종 매체들에서 빠르기를 잘 때 쓰인다. 물리학에서는 속력을 일컬으며 골프에서는 헤드의 스피드를 말한다.

만의 스윙을 하는 것이 스코어를 지키는 스윙이다.

투어 선수들을 보면 방향과 거리의 타협점을 보여주는 거리가 약 300야드 전후의 거리이다. 힘으로 350야드를 칠 수는 있지만 장타 선수처럼 무조건 멀리만 보내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코스매니지먼트를 파악해서 스코어를 만들기 때문에 컨트롤이 필요한 300야드 정도로 안정된 스윙을 전개하고 있다. 이때 그립을 너무 세게 잡게 되면 손목의 회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핀을 반감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스윙스피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몸통스윙으로 원심력의 스윙을 하여야 한다. 팔로만 빠르게 하는 스윙에는 파워에도 한계가 있고 방향을 잡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몸의 코일링이 최대한 작동돼야 고임이 풀릴 때 가속도가 불어 헤드스피드가 빨라진다.

파워있는 스윙스피드는 팔로스로우와 피니시에서 판가름이 난다. 임팩트에만 집중하여 불을 가격하는 일명 임팩트스윙은 헤드스피드가 급격하게 떨어지므로 임팩트 후에도 팔로스로우 끝까지 피니시스윙을 해야 제대로 원하는 힘을 전달할 수 있다.